

용연동굴의 개발 타당성

김천전문대 전임강사 홍충렬

I. 서론

태백산지의 내륙산간에 해당하는 태백시는 강원도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결정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용연동굴 뿐만 아니라 많은 석회동굴이 산재하고 동굴의 보고 지역이다.

지금까지 이곳 주민의 주산업은 석탄광업에 의존하여 왔으나 현재는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탄광의 폐광으로 마땅한 수익원이 없으므로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높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이곳의 과제라고 하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관광자원, 관광산업 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지역 부근에는 태백산간의 내륙계곡과 태백산 등의 자연경관을 비롯한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많으므로 관광개발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다.

II. 동굴개발

1. 관광자원적 가치 및 개발의 필요성
2. 지리적 위치 및 관광립지
3. 개발의 방향
4. 타당성 평가

용연동굴의 개발로 서울, 提川, 丹陽, 寧越, 平昌, 旌善, 東海, 三陟, 江陵 등의 인접 관광지들과의 연계성이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다. 동굴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과학 학습장이 생기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과학입국의 국가정책에도 부합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 되면 유입인구의 증가로 지방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관광지가 생기므로써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이 고장만의 특산물로 관광객들에게 판매되어 이 지역을 널리 알리는 효과와 함께 지역주민

의 소득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곳은 위락중심의 관광지가 아니고 역사학습과 휴식, 수련중심의 조용한 정적관광지 즉, 지하자원관과 산지문화관을 겸한 관광지로 개발됨으로써 청소년과 국민에게 꿈과 이상을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것이다. 이러한 개발은 주민들에게도 긍지를 갖게하여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게 된다.

VI. 결론

동굴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이 지역의 어느 정도의 훼손, 오손, 오염 및 지형 변화는 다소 각오하여야 하나 이 계획은 동굴내부를 최소한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고, 외부의 시설도 적게 개발할 계획이므로 대기, 수질, 그 밖의 공해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의 단계적 시행과 환경보전대책에 의한 개발로 하등의 악영향은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나타난다 하더라도 미비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동굴의 개발로 내부경관이 다소 오손, 오염될 것이 예측되나 학술연구,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되도록 단계별로 최소한의 개발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에 있어서는 그 방침이 자연보존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고, 동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악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자연 공간속에 그것도 산마루 위에 있는 동굴이므로 개발사업 시행 중 또는 시행후에도 공해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위와같은 개발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자연환경에 대해 악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간소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원으로 태백시 용연동굴을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